

원불교 소태산의 학교교육제도 수용과 교육사상

양 은 용

원광대학교

〈요 약〉

소태산(少太山: 朴重彬, 1891-1991)은 1916년에 대각을 이루고 원불교를 창립하여 교화활동을 펴다가 1943년에 열반하였다. 이 기간은 일제강점기로, 학교교육제도가 정착되던 시기였다. 그의 교체(敎體)는 민중의 결사체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일제의 통제 아래 활동에 많은 제약이 따랐다. 그 가운데 교단의 인재를 기르고 종교적 수행체계를 이루어 가는데 있어서 학교교육제도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여 활용하였다. 소태산의 학교교육제도 수용은 교리사상과 수행방법 등에 널리 나타나고 있다. 구세이념으로 전개한 원불교의 교의사상은 개교표어(開敎標語)인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로 대표된다. 이에서 과학(科學)과 도학(道學)의 병진을 강조함으로써 과학교육까지 수용할 수 있는 방향을 열어놓고 있다. 신앙문에 있어서 지자본위(智者本位)나 타자녀교육(他子女敎育)과 같이 사회구제의 실천이념이나, 수행문에 있어서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의 병진, 그리고 교단 3대사업목표를 교화·교육·자선으로 설정함으로써 이러한 시대사조를 반영하고 있다. 특히 학교교육제도는 정규교육과 비정규교육이 훈련방법에 있어서 정기훈련과 상시훈련, 교과과정과 교과목이 학위등급과 정기훈련 11과목, 평가와 학적부가 학력고시법과 신분조사서, 그리고 진급이 승급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소태산의 재세시부터 인재양성소 기성연합단을 조직하고 학원(學院)을 운영하였다. 이것이 바탕 되어 오늘의 원광대학교를 비롯한 원불교의 교육기관으로 발전하였다.

핵심 주제어 : 원불교, 소태산, 타자녀교육, 정기훈련, 타자녀교육, 원광대학교

I. 서 언

우리 속담에 「성인도 세상 따라 난다(聖人流世出)」고 하며 무지·빈곤·질병·전쟁 등의 사회악이 종교 성립의 계기를 가져온다고 한다. 이는 종교의 본령이 어지러운 사회와 도탄에 빠진 생민을 구하는데 있음을 나타낸 말이다. 따라서 창립종교의 경우, 개창조(開創祖)의 종교체험은 구세이념(救世理念)의 본질을 이루며, 그의 시대사회관은 교단이 존재하는 한 언제나 중요한 교리적 의미를 지니게 된다.

지구상에는 다양한 가르침을 전개한 수많은 교단이 인류역사와 더불어 출몰하고 성쇠를 거듭하였다. 그 교단이 존재한다는 것은 제도이념이 사회구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사람들로부터 부름을 받고 있음을 뜻한다. 이러한 실재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구세이념이 중요하지만 이를 담아낼 그릇, 다시 말해서 제도와 조직이 갖추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떤 교단이 세계종교로 발전했다는 것은 제도이념의 보편화와 함께 그만한 제도와 조직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종교의 가르침은 시대사회의 요구에 응하게 되므로 고정된 실체일 수는 없다. 경전이 새롭게 편집·번역되고 새로운 제도와 조직이 갖추어지게 되며 이에 응하지 못할 때 사람들로부터 멀어지고 그것이 심화될 때 드디어는 존재가치를 잃게 된다. 이것이 역사적인 교단에 일세를 풍미하는 걸출한 인물들이 존재하는 이유이다.

사회구원의 역사가 일천한 원불교에 대해서 이와 같은 제도사(濟度史)를 논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특수한 시대환경 아래서 창립과정이 이루어졌으므로 그 특성의 일단을 밝히는 것은 의미가 있을 것이므로, 여기서는 특히 개조(開祖) 소태산(少太山, 1891-1943)이 종교제도의 틀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당시의 학교교육제도를 어떻게 수용하고 또 활용하였는가를 밝혀보기로 한다.

근대 이후의 격변하는 사회상황 아래서는 종교의 성쇠가 매우 빠르고 따라서 어떤 제도의 시행도 그만큼 분명하게 나타나게 된다. 그것은 원불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서 소태산은 재세시에 교역자제도와 그 교육과정, 그리고 교도들의 신행(信行)에 대한 계위(階位)설정과 지도방법 등을 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흥미로운 것은 이러한 제도의 시행과정이 우리나라의 학교교육제도의 시행과 맞물려 있다는 점이다.

II. 소태산 대각개교(大覺開教)의 시대적 배경

소태산이 오랜 구도 끝에 대각(大覺)을 이룬 것은 1916년이며 원불교에서는 이 해를 개교(開教, 圓紀 원년)로 본다. 그의 열반이 1943년이므로 그의 창교 내지 구세활동은 전후 28년에 달하는데, 시대적으로 보면 전 기간이 일제강점기에 속한다.¹⁾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일제

1) 소태산의 행장과 구세사업에 관해서는, 『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원불교전서(圓佛敎全書)』, 익산:

는 공인종교를 신도(神道)·불교·기독교에 한하여 이를 문부성에서 관리하고, 기타의 종교는 모두 유사종교(類似宗教)로 규정하여 법무성 경찰국에서 단속〔取締〕하는 대상으로 삼았다. 원불교 즉 당시의 불법연구회(佛法研究會)도 이의 유사종교에 속했음은 말할 나위없다.²⁾ 다만 일제강점기는 무단통치기(1910-1919), 문화통치기(1919-1931), 그리고 민족말살통치기(1931-1945)로 통치스타일에 다소의 차이를 보이는데, 그 통치의 틈새에서 결사체 형태로 교단을 이루어 명맥을 유지하는 차원이었다.

소태산의 대각에서 1924년의 창립총회까지는 영광과 부안을 중심한 지하 결사체였으며, 그 이후는 익산의 현 위치에 중앙총부를 마련하여 공동생활을 하는 공개 신행단체로 영위해 왔다. 그는 대각과 더불어 구세이념을 뚜렷이 밝히는데 이는 크게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다.

첫째는 전통종교와의 관련인데, 불법(佛法)³⁾에 주체를 두고 있는 점이다. 그는 스승의 지도 없이 자수자각(自修自覺)으로 도를 이루었으나 『금강경(金剛經)』을 열람하고 석존(釋尊)을 성인들 중의 성인으로 찬탄하며 연원(淵源)으로 정한다. 그의 불교관은 이른바 교상판석(敎相判釋)적 성격을 분명히 하여,

<1> “불법(佛法)은 천하의 큰 도라 참된 성품의 원리를 밝히고, 생사의 큰 일을 해결하며, 인과의 이치를 드러내고, 수행의 길을 갖추어서 능히 모든 교법에 뛰어난 바 있나니라”⁴⁾

고 밝히고 있다. 불교가 장차 세계적인 주교(主教)가 될 것을 예견하면서 동시에 불법의 시대화·대중화·생활화라는 개혁이념을 선포하고 있다. 물론 그의 불교와의 만남은 불교 교의에 그치지 않고 유·불·도 삼교로, 그리고 만종교 만사상으로 확대된다. 이는 전통종교 가르침의 일원화, 혹은 통합활용 등으로 포월(包越)하고 있지만 「새 종교로서 새 불교」⁵⁾라

원불교출판사, 1977)를 참조.

2) 조선총독부편, 『시정삼십년사(施政三十年史)』, 조선총독부, 1940, 83쪽에서는, 「병합(1910 한일합방) 후에 이르러 조선인척의 사원에 대해서는 명치44년(1911) 6월 제령(制令)으로서 「사찰령」을 공포하고, 신도·불교·기독교의 일반포교에 관해서는 대정 4년(1915) 8월 부령(府令)으로써 「포교규칙」을 제정발포하고, 내(內: 일본)·선(鮮: 한국) 외인의 구별없이 균등하게 이를 시행 적용한 것이다.」라 하였다. 이여성·김세용 공저, 『숫자조선연구』3(세광사, 1932) 111쪽에서는 「이른바 종교와 유사종교(類似宗教)와의 이른상 엄숙한 구별을 하기는 매우 곤란한 일이나 법령상 예수교·불교·신도 이외의 제교(諸敎)는 일률로 유사종교라고 부르게 된다.」고 정의하여, 학리상의 정의가 아니라 통치차원의 단속을 위한 법령상의 용어였음을 말해주고 있다.

3) 한정석, 「원불교 불교관」(수위단사무처편, 『원불교사상 시론』 I, 1982, 75쪽 이하)에서는 소태산의 불교관을 불교와 불법으로 구분하여, 계승해야할 근본진리는 ‘불법’으로, 제도적인 개혁을 필요로 하는 전통불교를 ‘불교’로 보고 있다.

4) 『대종경』 서품 3장(『원불교전서』, 95쪽)

는 교체는 소태산의 불교관에서 비롯된 것이다.

둘째는 신종교 내지 민중종교와의 관련인데, 그 핵심을 이루는 개혁사상(開闢思想)을 전개하고 있다. 교단창립의 시기나 형태 등에서 원불교는 신종교군으로 분류되며, 신종교운동의 교의적 특징인 후천개벽사상을 비롯하여 원융회통사상·민족주체사상·인간존중사상·사회개혁사상 등⁶⁾을 공유·전개하고 있다. 소태산이 대각 후 시국을 살피 지도강령을 개교표어(開教標語)로 제시한

<2> “물질이 개벽되니 정신을 개벽하자”⁷⁾

는 표현이 이를 대변한다. 이는 원불교 교의에서 중시되는 이사병행(理事並行)·영육쌍전(靈肉雙全) 등의 병진교리로 도학과학병진(道學科學並進)으로 정리되고 있는데 과학문명이 발달된 시대환경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구세이념이 이처럼 근대라는 시대사회의 환경을 전제로 형성되었으므로 교리에도 그 형태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예컨대 최초로 실시된 가르침 즉 「최초법어(最初法語)」는 전통교육의 중심을 이루던 유교의 수제치평(修齊治平)의 교훈이 잘 녹아 있다. 그 정리된 형태가 「수신의 요법」, 「제가의 요법」, 「강자·약자 진화(進化)상 요법」,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인데, 이 중에 학문과 교육이 강조되어 나타난다.

<3> “시대를 따라 학업(學業)에 종사하여 모든 학문(學問)을 준비할 것이요”(수신의 요법 1조)

<4> “호주는 견문과 학업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자녀의 교육을 잊어버리지 아니하며, 상봉하술의 책임을 잊어버리지 아니할 것이요”(제가의 요법 2조)⁸⁾

등이다. 이는 새로운 시대에 민중을 구제할 포부를 밝힌 것으로, 교육에 입각한 지도상이 전제되어 있는 것이다.

교리조직에 있어서도 평등사회 건설 요항으로 사요(四要) 즉, 자력양성·지자본위(智者本位)·타자녀교육·공도자숭배(公道者崇拜), 수행의 길로 제시한 삼학(三學) 즉 정신수양(精神修養)·사리연구(事理研究)·작업취사(作業取捨)⁹⁾ 등의 용어에서 교육관의 일단이 확인된다.

5) 성립시기 등에서 보는 신종교관과 불법이 주체된 교법관을 함께 담은 이 표현이 원불교에서 표방하는 교체이다.

6) 김홍철저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서울: 집문당, 1989)에서는 후천개벽사상·종교회통사상·인본위(人本位)사상·사회개혁사상으로 정리하고 있다.

7) 『대종경』 서품 4장(『원불교전서』, 95-96쪽)

8) 『정전(正典)』 수행편 최초법어(『원불교전서』, 84쪽 이하)

9) 『정전』 교의편 사요·삼학(『원불교전서』, 39쪽)

소태산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 인간변화 즉 중생이 변하여 불보살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 가운데 나타나는 교육은 「마음공부」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된다. 그가 마련해 나간 법적 제도적인 장치와 함께 교과과정과 교재, 기관과 교원양성 등 각 방면에 대한 노력은 구세이념의 구체적인 전개이다. 그가 전개한 교화활동은 차원을 달리한 교육이며, 학교교육을 통해 비춰보면 그 성격을 분명하게 읽을 수 있다.

III. 교체(敎體) 형성과 학교교육제도의 수용

1924년 창립총회를 통해 교단을 공개한 원불교는 익산에 중앙총부를 건설하여 공동생활을 시작한다. 공동생활은 이후 출가 교역자집단을 이루는데 교육제도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으로 옮겨진다.¹⁰⁾ 근대 학교를 중심한 공교육제도는 1894년 갑오교육개혁으로 구체화되며 이를 전후하여 선교재단에 의한 기독교계 학교가 다수 설립되었고,¹¹⁾ 일제시에 이르러 1911년 8월의 「조선교육령」의 제정과 함께 학제를 전면적으로 개편 시행하였으므로 10여년이 흐른 당시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이 대세를 점하게 되었다.¹²⁾

그러나 이러한 식민통치하의 학교 교육에도 불구하고 원불교 초기교단에 참여한 사람들은 대체로 제도권교육으로부터 소외된 계층이 대부분이었다. 따라서 소태산은 이들을 대상으로 신앙수행을 통어하는 한편 이를 지도할 인재를 육성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학교교육제도를 수용하고 있는데, 교육관련 사항을 중심으로 소태산 재세시의 제도화과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¹³⁾

<5> 1924.9.29, 중앙총부를 현재의 전북 익산시 신륵동 344-2번지에 마련하고, 주경야독(晝耕夜讀)의 실행공동체생활 시작.

1925.4, 훈련법(정기훈련법, 상시훈련법) 제정 발표.

10) 김해광, 「교육사」, 성업문화회편,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9, 578쪽 이하에서는 원불교 교육사를 교육활동준비기(1916-1923), 일제하의 교육(1924-1945), 유일학림 이후 교육활동(1946 이후)로 시대구분하여 분석하고 있다.

11) 갑오개혁을 주도한 김홍집내각의 군국기무처는 1894년 8월 3일 과거제도를 폐지하고 8월 14일에는 문관수입식을 제정하여 새로운 관리임용제도를 확립하고 있다. 이해 9월 18일, 칙령 제79호에 의해 한성사범학교가 설립되었다. 한국근대의 학교교육제도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개화기의 학교교육-』(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15쪽 이하를 참조.

12) 일제시의 학교교육의 규모에 대해서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II-일제시대의 학교교육-』(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7), 32쪽 이하를 참조.

13) 이하 연보는 『원불교교사』(『원불교전서』 1017쪽 이하)를 비롯하여 『사업보고서』·『월말통신』·『월보』·『회보』 등 각종 역사자료에서 발췌하였다. 다만 이는 교육제도를 중심한 것이므로 교단의 주요사항을 누락시킨 경우도 없지 않다.

- 6.29-9.23, 제1회 정기훈련(夏禪, 3개월) 실시.
- 10, 「학력고시법(學力考試法)」·「사업고시법(事業考試法)」·「학위등급법(學位等級法)」 발표.
- 1926.3, 「신정의례(新定儀禮)」 발표.
- 1927.3, 「신분검사법」 발표, 『불법연구회규약(佛法研究會規約)』 발행.
- 5.28, 교과서 『수양연구요론(修養研究要論)』 발행.
- 1928.4.6, 농업부 기성연합단, 인재양성부 기성연합단 발기.
- 5.17, 학위승급식(學位昇級式) 거행, 기관지 『월말통신』 창간.
- 1929.4, 「은부시자녀결의법(恩父侍子女結義法)」 제정.
- 1930.4.18, 중등교육기관 파견 최초 장학생 선발.
- 11.15, 삼강령(三綱領) 훈련등급 제정.
- 12, 동선(冬禪) 중, 학력고시 시행으로 입격자 수료증 수여.
- 1931.1, 경성(京城)지부, 학력고시 시행.
- 5.7, 법위등급(六名簿) 공개.
- 7.31, 『불법연구회 통치조단규약(統治組團規約)』 발간.
- 1932.4.1, 교서 『보경 육대요령(寶經六大要領)』 발행.
- 7.4, 학원(學院) 교무직 신설.
- 11.24, 영광지부, 영산학원단 신설하고 학원교육 실시.
- 1934.5.9, 양원십부제(兩院十部制) 시행으로 서정원(庶政院)에 육영부(育英部) 신설.
- 1935.9.10, 총부 청소년회 조직, 문맹아동을 위한 야학원 「수도학원(修道學院) 설치, 각 지방에 야학운영 확산.
- 1936.10.7, 일경, 총부구내를 내사하기 위하여 주재소 설치.
- 12-1938.11, 정산(鼎山 宋奎), 「불법연구회 창건사」 발표.
- 12, 전수(專修)학원장을 발령하고 학원운영을 준비.
- 1939.7, 진안지부 송벽조교무, 「일왕(日王)모독사건」을 일으켜 구속되고 일제의 교단 감시가 강화됨.
- 1941.1, 교역자 양성기관 「유일(唯一)학원」 설립청원이 전라북도에 의해 불허됨.
- 4, 「타자녀교육법(他子女教育法)」 실시.
- 12, 총부에 유년회 창립.
- 1942.4.5, 총부에 탁아소 겸 보육원 「자육원(慈育院)」 설립.
- 1943.3.20, 교서 『불교정전(佛敎正典)』 발행.
- 6.1, 소태산 열반.

소태산은 1924년 현재의 익산총부에 신행공동체를 마련한 이후 20년에 이르는 기간동안 교단조직을 마련하고 교리체계화와 교화활동을 전개하였다. 공동체는 출가교역자제도로 정착하며, 그 가운데서 교역자 육성과 일반교도의 훈련이 필요하게 되었다. 대각초기에 영광

을 중심으로 전개한 상조조합과 방언답조성 등의 경제활동이 있었으나 공동생활을 영위할 토대는 전혀 마련되지 않은 상태였다. 거기에서 착수한 것이 농장소작·옛장사 등의 작무(作務)와 수행·독서 등의 공부를 겸하는 주경야독의 생활제도였다.

공동생활과 동시에 착수한 것이 훈련법이며, 이는 신앙수행의 합동수련기간인 정기훈련(定期訓練)과 일상생활 중의 상시훈련(常時訓練)으로 나누어진다.¹⁴⁾ 전자는 동하(冬夏) 3개월 씩으로 하선(夏禪)·동선(冬禪)으로 불려 불교전통의 안거(安居)에 대비된다. 당시에 정리화된 정기훈련의 시작에 대하여 『원불교교사』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6> “원기 10년(1925·을축, 음력) 5월 6일에, 대종사, 새 훈련법에 의하여 첫 정기 훈련을 실시하실 제, 총부 가옥이 아직 협착하므로 임시로 구내 개인 가옥(전음광 집) 일부를 빌려 교무 송규(송규)의 지도 아래 10여명의 남녀 선원(禪員)이 하선훈련을 받게 하시고, 11월에는 교무 이춘풍(이춘풍)의 지도 아래 20여명의 남녀 선원이 동선훈련을 받게 하시니, 이 양기(兩期)의 선이 새 회상 정기훈련의 원시(元始)가 되었다”¹⁵⁾

고 하였다. 결제일과 해제일을 6일로 정한 것은 교단초기의 삼 6일(6·16·26일) 월례회 일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런데 자료 <6>에서 보는 바와같이, 이를 운영하는 체제와 용어 등에서 학교교육제도를 수용한 측면이 강하게 나타난다. 전자가 정규교육(Formal Education)이라면, 후자는 비정규교육(Informal Education)의 차원으로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교육과정의 진행여부는 자신의 일기법으로 점검하며, 총괄평가의 성격을 띤 신분검사법으로 최종 평가하게 되는데, 학교교육에 대비하면 이는 종합평가에 해당하는 셈이다. 이 평가에 따라 공부성적과 사업성적이 매겨져 학위등급이 정해지는데 이것이 수행계위 즉 법위등급(法位等級)으로 제도화 된다.¹⁶⁾ 학교교육에 있어서 이는 학력평가 등급에 대비될 수 있을 것이다. 1925년에 제정된 「학력고시법」·「사업고시법」·「학위등급법」, 그리고 1927년 마련된 「신분검사법」이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며, 이의 시행에 의해 1928년 학위승급식을 거행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가 갖추어지면서 교과목에 대한 요청에 응한 것이 1930년의 삼강령에 따른 훈련등급이다. 이는 수행교리의 삼학인 정신수양·사리연구·작업취사에 따른 교과목 마련을 말하는 것으로, 염불·좌선·경전·강연·회화·의두(疑頭)·성리(性理)·정기일기·상시일기·주의(注意)·조행(操行) 등의 정기훈련 11과목을 말한다.¹⁷⁾ 정규교육에 있어서 교과목

14) 『정전』 수행편,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원불교전서』, 55쪽 이하)

15) 『원불교교사』.(『원불교전서』, 1071쪽)

16) 법위등급의 성립과 그 성격에 대해서는 줄고, 「원불교 법위등급의 성립과 특징」(원광대 원불교 사상연구원, 『원불교사상』 25, 485쪽 이하)을 참조. 1927년 발행된 『수양연구요론』에 그 원형이 나타나, 현재 『정전』 수행편의 말미에 수록, 공부의 표준으로 제도화되어 있다.

17) 『원불교교사』 제2편 1장.(『원불교전서』 1070쪽)

에 해당하는 이 11과목이 일시에 시행된 것은 아니지만 당시 수행의 길잡이가 되어 오늘날의 수행교리로 편입되고 있다.¹⁸⁾ 학력고시를 실시하여 입격자에게 수료증을 수여하며, 그 내용을 학적부처럼 비치하여 1931년부터 공개하고 있다.

이런 과정에서 교단적으로 해결해야 할 두 가지 과제가 대두하였다. 하나는 교재이며, 다른 하나는 교육기관의 설치문제였다.

먼저 교과서는 1927년에 『수양연구요론』을 발행하고 있지만 수행이론서의 번역 등으로 이루어진 이것은 수행지도를 위한 교과서로 불리며, 1932년의 『육대요령』에 이르러 「보배로운 경전(寶經)」이라는 명칭을 얻게 된다. 이들 교재는 모두 한글 혹은 국한문 혼용체로 이루어져 있는데, 제도권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한 문맹자들을 위해서는 일기법에는 「태조사(太調査)법」¹⁹⁾을 두어 마음공부에 이용하도록 하고 있다. 소태산은 교리와 제도 등의 대중에게 필요한 바는 『예전(禮典)』(1935)·『조선불교혁신론(朝鮮佛教革新論)』(1935, 초안은 1920년경에 이루어짐)처럼 한결같이 문자화시키고 있는데, 교리형성 과정을 말해주는 이들을 망라하여 1943년 완성된 경전으로 『불교정전』을 발간하고 있다.

소태산은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소회를 밝히고 있다.

<7> “대중사 열반을 일년 앞두고 그동안 진행되어 오던 정전(正典)의 편찬을 자주 지촉하시며 감정(鑑定)의 붓을 들으시매 시간이 밤중에 미치는 때가 잦으시더니, 드디어 성편되매 바로 인쇄에 붙이게 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를 ‘때가 급하여 이제 만전을 다 하지는 못하였으나, 나의 일생 포부와 경륜이 그 대요는 이 한 권에 거의 표현되어 있나니, 삼가 받아가져서 말로 배우고, 몸으로 실행하고, 마음으로 증득하여, 이 법이 후세 만대에 길이 전하게 하라. 앞으로 세계 사람들이 이 법을 알아보고 크게 감격하고 봉대할 사람이 수가 없으리라.’”²⁰⁾

자신이 베풀어오던 구세이념을 열반에 앞서 결집하고 있는데, 일제시대인 표현 등 당시

18) 『정전』 수행편 2장(『원불교전서』 54쪽)에서 「공부인에게 정기로 법의 훈련을 받게 하기 위하여 정기훈련 과목」으로 이들을 밝히고 「염불·좌선은 정신수양 훈련과목이요, 경전·강연·회화·의두·성리·정기일기는 사리연구 훈련과목이요, 상시일기·주의·조행은 작업취사 훈련과목이니라.」고 구분하고 있다. 다만 『선원일지(禪院日誌)』(1936-1941)에 의하면 정기훈련은 일과가 4시반에서 저녁 9시반까지 계속되는데, 교과목은 아침 좌선, 오전 경전(교리강론), 오후 고경(古經, 주로 불교·유가서)·독서·일기(감각감상), 저녁 염불, 그리고 염불 이후의 시간은 처음 1개월이 주로 회화, 다음 1개월이 강연, 마지막 1개월이 성리연마로 구성되어 행해지고 있다.

19) 「문자와 서식에 능하지 못한 사람을 위하여는 따로이 태조사법을 두어 유념 무념만 대조하게 하나니, 취사하는 주의심을 가지고 한 것은 흰 콩으로 하고, 취사하는 주의심이 없이 한 것은 검은 콩으로 하여, 유념·무념의 변수를 계산하게 하는 것이니라.」(『정전』 수행편 6장 일기법, 『원불교전서』, 71쪽)

20) 『대종경』 부속품 3장(『원불교전서』, 400쪽)

의 제약된 상황을 정리한 것이 오늘의 『정전』이며, 「원경(元經)」으로 받들린다. 이것이 내전(內典)의 기반인데, 원불교 교역자의 교육은 수도자라는 기반 위에, 후술할 바와같이, 학덕을 겸비한 지도자를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후 교과목의 중요한 위치를 점하게 된다.

다음으로 교육기관의 설치는 1928년의 농업부 기성연합단과 인재양성소 기성연합단을 발기한 것이 중요한 계기가 된다. 취지서에는 당시에 목표했던 바가 잘 나타나는데 다음과 같다.

<8> “대범 정신적 연구란 모든 사업진행의 근본이요, 모든 사업진행은 또한 육신생활의 근본이요, 육신생활법은 정신적 연구의 근본이 된다. 그러므로 정신과 육신이 서로 근본이 되고 연구와 사업이 서로 표리가 되는 것이니 정신적 연구가 아니면 육신생활의 근본이 서지 못할 것이요, 육신생활이 아니면 반드시 모든 사업을 진행할 수 없는 것이니, 오직 우리 출가선 무산대중(出家禪 無產大衆)이여, 비록 정신적 연구가 가장 긴요한 줄로 아나 능히 연구의 목적을 도달하지 못함은 다만 육신생활의 관계가 된 것이라, 만일 연구와 생활이 서로 구애되지 아니하면 무슨 사업을 성취치 못하리요. · (중략) · 그러므로 본 기관을 설립하여 낮으로는 농업을 근무하고 밤으로는 진리를 연구하여 몇 개월은 농업을 근무하고 몇 개월은 진리를 연구하는 것은 실로 이 양방을 구축케 하여 모든 사업의 의무를 공급한다. 본 취지에 찬성하는 제씨는 연구하기를 놓지 말며 근무하기를 놓지 아니하여 밖으로는 본교의 사업을 세우고 안으로는 도덕의 정신을 밝혀 우리 무산대중의 근거가 되어 원만한 사업을 성취할 것이다.”²¹⁾

<9> “사람은 만물의 영장인 만큼 그 활동이 가장 신성하다. 내가 스스로 나를 돌아볼 때에는 미미하게 반짝이는 일점의 정신과 육체에 미만한 일개의 육체야말로 지소막연(至小漠然)한 것이지마는 다시 한 번 본성(本性)의 본체를 참고하면 정신은 위로 무량한 허공계와 기운이 통했으며, 육체는 아래로 광막한 대지와체가 같나니, 한 사람은 삼재(三才)를 총합한 결정이며 만리를 겸존한 본체로다. 그러므로 그 동력은 실로 위대하니, 능히 우주를 추동하며 만사를 흥폐하나이라. 만약 사람들이 아니면 천지는 공각(空殼)이요 만물은 무주(無主)일 것이다. 그러나 사람이면 다 그러한 위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 사람이 아니면 그 힘이 없나니 그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고? 우리가 양성하려는 그 사람을 말함이다. 방금에 대도의 기관이 된 지 오래러니, 천운이 순환함에 다행히 대광명의 법성(法星)이 동방에 조약하여 일체중생의 곤수(困睡)를 깨우려 하나 깨닫는 자 드물고 다시 그 기관을 운용하려 하나 동력(同力)할 자 적으니 어찌, 유감되는 바 아니리요. 이에 본단(本團) 등이 미력임을 불고하고 본 기관 창립에 진심헌성(盡心獻誠)코자 하오니 우리의 영원한 사업을 성취함에 일조가 된다면 본단 등의 본회(本懷)라 하겠으며 무엇보다도 혼행불감(欣幸不竭)할 바이다.”²²⁾

21) 『월말통신』 3, 1928.

22) 같은 책.

라 하고 있다. 양대 사업단이 공동생활을 통해 작무와 교육이라는 두 가지 길을 개척하고 있다. 스스로 무산대중이므로 자력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자각위에 서있음이 분명하게 나타난다. 인재양성소 기성연합단의 취지서와 함께 발표된 「규칙」에는 설치 목표와 조직, 회의, 수입방법, 식리(殖利)방법, 지불방법 등을 담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교육해낼 인재를 「선원(禪員)양성·임원(任員)양성·교원(敎員)양성」으로 밝히고 있다.

교단초기의 상조조합에서부터의 이념이 정신의 자주력, 경제의 「자립력, 생활의 자활력」에 모아져 있었고, 작무와 공부라는 두 가지가 전통이 되어 있었다. 그 전통 속에 이들 두 단체 등에 의한 자금이 축적되자 상조조합이 활발해지고 있는데 교육에 있어서는,

<10> “제9조 공부자금저축은 환경과 사정에 의하여 직접 전문공부를 하지 못한 재가회원(평교도)으로써 장래의 공부할 비용을 미리 저축하였다가 매년 그 이자으로써 전문공부할 비용을 하계 합이니 1년 2기중 1기 비용원금은 250원, 양기 비용 원금을 합하면 500원으로 정하고, 그 저축방법은 8조(일시불입 혹은 분할불입)와 동일함.

제12조 교육비자금저축은 회원 각자의 자녀교육을 목적하고 저축하는 것이니 액수 다소는 자의에 임하고 저축방법은 8조와 동일함”²³⁾

이라는 이념을 확립하고 있다. 말할 나위 없이 9조의 공부 자금저축은 수행을 위한 정기훈련의 선비(禪費)이며, 12조의 교육비자금저축이 순수한 교육을 위한 고정자금을 마련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 1932년 학원교무를 신설한 것처럼, 학원이라는 제도가 지도자 육성 등의 필요에 따라 공동 생활하는 대중가운데서 주로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교육과정을 실시하면서 생겨난다. 그리고 1934년에는 행정기관에 육영부라는 관련 부서를 두며, 이어 청소년회나 문맹아동을 위한 교실을 운영하고 이를 각 지방의 조직으로 확산시키고 있다.

1936년에 이르면 일제도 원불교 교단을 주목하기에 이른다. 그 해에 보천교(普天敎)·무극대도(無極大道)를 해체시킴으로써 신종교단체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상황 아래서 마령교당의 송벽조(宋碧照, 본명 寅驥)교무가 이른바 「일왕모독사건」을 일으킨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²⁴⁾ 이후 일제는 교단을 해체하기 위해 갖은 방법을 동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서 내부적으로 학원을 운영해 오던 소태산은 관인학원이라는 교육기관을 설치하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이것이 1941년의 교역자 양성기관 「유일(唯一)학원」 설립청원으로 전라북도에 의해 불허된다.

그의 사후, 해방 이듬해인 1946년 개설된 유일학림은 이런 유지를 받아서 이룬 것이며,

23) 『불법연구회 상조부 규약』 (1935. 3. 26).

24) 김정용, 「일제하 교단의 수난」 (성업문화회편,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9, 212쪽 이하), 줄고, 「구산송인기(久山宋寅驥)의 천황(天皇)모독사건과 일제말기 원불교의 수난」 (『한국종교사연구』 7 (한국종교사학회, 1999), 335쪽 이하 참조.

오늘의 원광대학교 전신이다. 어떻든 소태산은 생전에 총부구내에 학원을 마련하고 교제와 함께 지도인을 배출해내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1> “우리의 사업목표는 교화·교육·자선의 세 가지니 앞으로 이를 늘 병진하여야 우리의 사업에 결함이 없으리라”²⁵⁾

라는 3대사업목표를 분야로 나누어 설정하고 있다. 이는 대각 이듬해인 1917년, 회상(會上) 창립한도를 설정하여 12년을 1회, 36년을 1대로 하는 장단기 계획을 수립한 것과 경(經)과 위(緯)를 이루는 것으로 보인다.

IV. 소태산 교육방법의 기본원리

그러면 소태산이 전개한 교육방법과 교육사상은 어떠한가? 그가 만년에 교육을 사업의 한 분야로 설정한 것처럼, 그의 교설에는 교육과 관련한 내용이 산재한다. 우선 교리강령을 이루는 「교강(敎綱) 9조」에서,

<12> “7. 배울 줄 모르는 사람을 잘 배우는 사람으로 돌리자.
8. 가르칠 줄 모르는 사람을 잘 가르치는 사람으로 돌리자”²⁶⁾

라 설정하고 있다. 이 두 조항은 사회불공(社會佛供) 즉 사회발전을 위한 실천요항인 사요(四要)인 자력양성·지자본위·타자녀교육·공도자승배에서 지자본위와 타자녀교육의 실천요항이다.

『정전』에는 이에 대한 개념을 밝히고 있는데,

<13> “지자(智者)는 우자(愚者)를 가르치고 우자는 지자에게 배우는 것이 원칙적으로 당연한 일이니, 어떠한 처지에 있든지 배울 것을 구할 때에는 불합리한 차별제도에 끌릴 것이 아니라 오직 구하는 사람의 목적만 달성하자는 것이니라”²⁷⁾

<14> “교육의 기관이 편소하거나 그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

25) 소태산은 1918년 10월, 12년을 1회, 36년을 1대로 하는 창립한도를 발표하여 교단운영의 기획을 발표, 시행해 왔는데, 만년에 이르러 교단의 사업목표를 교화·교육·자선이라는 3분야로 설정하여 늘 병진하도록 부촉하고 있다.(『대종경』 부속품 15장, 『원불교전서』, 407쪽)

26) 『정전』 수행편 제3장 일상수행의 요법.(『원불교전서』, 54쪽)

27) 같은 책, 교의편 제3장 사요, 지자본위.(『원불교전서』, 41쪽)

의 문명이 지체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 모든 후진을 두로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의 생활을 하자는 것이니라”²⁸⁾

이라 밝히고 있다. 예컨대 타자녀교육 조항에는 이러한 강령과 함께 타자녀교육의 조목 등이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다. 즉 「과거교육의 결함조목」에서는,

- <15> “1.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이 없었음
2. 교육의 제도가 여자나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생의도 못하게 되었음
3.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음
4. 언론과 통신 기관이 불편한 데 따라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음
5. 교육의 精神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한 데 따라, 有産者가 혹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면 가르치지 못하였고, 무산자는 혹 자손 교육에 성의는 있으나 物質적 능력이 없어서 가르치지 못하였음이라.”²⁹⁾

하였다. 소태산은 교육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분명한 관점을 피력하고 있는 것이다.

소태산은 현대사회의 병맥을 진단하여 돈의 병, 원망의 병, 의뢰의 병, 배울 줄 모르는 병, 가르칠 줄 모르는 병, 공익심 없는 병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6> “지금 세상은 전에 없던 문명한 시대가 되었다 하나 우리는 한갓 그 밖으로 찬란하고 편리한 물질문명에만 도취할 것이 아니라, 마땅히 그에 따르는 결함과 장래의 영향이 어떠한 것을 잘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니, 지금 세상은 밖으로 문명의 도수(度數)가 한층 나아갈수록 안으로 병맥(病脈)의 근원이 깊어져서 이것을 이대로 놓아두다가는 장차 구하지 못할 위경에 빠지게 될지라, 세도(世道)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근심을 금하지 못하게 하는 바이니라. 그러면, 지금 세상은 어떠한 병이 들었는가. ·(중략)· 넷째는 배울 줄 모르는 병이니, 사람의 인격이 그 구분(九分)은 배우는 것으로 이루어지는지라 마치 벌이 꿀을 모으는 것과 같이 어느 방면 어느 계급의 사람에게라도 나에게 필요한 지식이 있다면 반드시 몸을 굽혀 그것을 배워야 할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제 각기 되지 못한 아만심에 사로잡혀 그 배울 기회를 놓치고 마는 수가 허다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 다섯째는 가르칠 줄 모르는 병이니, 아무리 지식이 많은 사람이라도 그 지식을 사물에 활용할 줄 모르거나, 그것을 퍼서 후진에게 가르칠 줄을 모른다면 그것은 알지 못함과 다름이 없는 것이어늘 세상 사람들 중에는 혹 좀 아는 것이 있

28) 같은 책, 타자녀교육, 43쪽.

29) 같은 책.

으면 그것으로 자만(自慢)하고 자궁(自矜)하여 모르는 사람과는 상대도 아니하려 하는 수가 허다하나니, 이것이 곧 큰 병이며...³⁰⁾

그리고 이 병들을 고치기 위해서는 먼저 도학(道學)을 장려함으로써 분수에 편안하는 도와, 근본적으로 은혜를 발견하는 도와, 자력생활하는 도와, 배우는 도와, 가르치는 도와, 공익 생활하는 도를 가르쳐서 사람들이 안으로 자기를 반성하여 각자의 병든 마음을 치료하게 하는 동시에, 밖으로 세상을 관찰하여 병든 세상을 치료하는 데에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역설한다.³¹⁾ 교육과 훈련에 의해 세상이 진화하고 생명(生靈)이 낙원생활을 하게 될 것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그는 도학과 과학의 병진론을 전개한다. 즉 그는 자료 <3>에서 밝히고 있는 것처럼 학문에 대해 권면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외학(外學)과 외지(外知) 구하는 것에 대해 「박식(博識)은 될지언정 정신기운은 약해져서 참 지혜를 얻기 어렵다」³²⁾고 강력하게 금기시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은,

<17> “안으로 정신문명을 촉진하여 도학을 발전시키고 밖으로 물질문명을 촉진하여 과학을 발전시켜야 영육이 쌍전하고 내외가 겸전하여 결함 없는 세상이 되리라. 그러나 만일 현대와 같이 물질문명에만 치우치고 정신문명을 등한시하면 마치 철 모르는 아이에게 칼을 들려 준 것과 같아서 어느 날 어느 때에 무슨 화를 당할지 모를 것이니, 이는 육신은 완전하나 정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고, 정신문명만 되고 물질문명이 없는 세상은 정신은 완전하나 육신에 병이 든 불구자와 같나니, 그 하나가 충실하지 못하고 어찌 완전한 세상이라 할 수 있으리요. 그러므로, 내외 문명이 병진되는 시대라야 비로소 결함 없는 평화안락한 세계가 될 것이니라”³³⁾

는 법설에 이르러서 그 본질을 드러내는 것으로 보인다. 다시 말하면, 권면은 시대를 향도해 나갈 역군을 길러내는 입장이며, 금기는 출가수도인에게 수행력을 갖추도록 촉구하는 입장이라는 말이다. 그리고 이 둘이 회통(會通)될 때, 비로소 도학과 과학이 병진된다는 귀결이다.³⁴⁾

소태산의 교육은 이와같이 도학과 과학의 병진론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전개한 교육방법의 기본원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사항을 특징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30) 『대종경』 교의품 34장.(『원불교전서』, 133-134쪽)

31) 같은 책, 35장.(136쪽)

32) 같은 책, 수행품 45장.(『원불교전서』, 169쪽)

33) 같은 책, 교의품 31장.(『원불교전서』, 131-132쪽)

34) 줄고, 「교학수립(敎學樹立)과 교리해석(敎理解釋)」(원불교사상연구원, 『원보』 24, 1985.10.8) 참조.

첫째, 교육의 내용에 있어서 도학을 근본으로 하고 과학을 지말로 봄으로써 도덕교육을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과학문명이 발달된 현대사회에 있어서 이를 선용할 정신문명 즉 도덕문명이 요청되며, 따라서 안으로 도학을 장려하고, 밖으로 과학을 아우를 때 안과 밖이 골라 맞는다는 것이다. 소태산은 말하고 있다.

<18> “지금 세상은 과학문명의 발달을 따라 사람의 욕심이 날로 치성하므로 심전제발의 공부가 아니면 이 욕심을 항복받을 수 없고 욕심을 항복받지 못하면 세상은 평화를 보기 어려울지라”³⁵⁾

<19> “천하 만사가 다 본말(本末)과 주종(主從)이 있나니, 근본을 알아서 근본에 힘쓰면 끝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끝을 따라 끝에만 힘쓰면 근본은 자연 매하여질 것이요, 또한 주(主)를 알아서 주에 힘쓰면 종(從)도 자연히 좋아질 것이나, 종을 따라 종에만 힘쓰면 주가 자연 매하여질 것이니, 예를 들면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은 근본이 되고 육신은 끝이 되며, 세상에 있어서 도학(道學)은 주가 되고 과학은 종(從)이 되는 바 이 본말과 주종을 분명히 알아야만 비로소 도를 아는 사람이라, 이러한 사람이라야 능히 천하사라도 바로 잡을 수 있나니라”³⁶⁾

본말에 의해서 보면 사람은 정신이 근본이고 육신이 지말이며, 세상은 도학이 근본이고 과학이 지말이라고 본다. 따라서 근본을 다스리는 교육에 힘쓰면 지말도 따라오지만 지말에만 힘쓰면 근본이 어두워진다. 도학이란 마음다스리는 공부요 도덕교육을 말한다. 물질문명은 생활을 편리하게 하므로 자연히 발달되지만 정신문명이 선행되지 않으면 세상에 평화를 보장할 수 없으므로 이를 다스릴 방법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생활에 편리를 가져오는 과학교육은 학교에서 실시하지만 마음다스리는 도학교육은 실시하는 곳이 없으니 종교가에 담당해야 한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학습방법과 관련해 보면 학습자의 능력에 맞추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학습자의 능력은 근기(根機)이며 근기에 맞추어 교육할 때 교육의 효과가 극대화 된다. 소태산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20> “나의 교화하는 법은 비하건대 나무의 가지와 잎사귀로부터 뿌리에 이르게도 하고, 뿌리로부터 가지와 잎사귀에 이르게도 하나니, 이는 각각 그 사람의 근기를 따라 법을 베푸는 연고이니라.”³⁷⁾

<21>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 네 가지 법이 있나니, 첫째는 심교(心敎)라 마음에 신앙처를 두고 바르고 착하고 평탄하게 마음을 가져서 자녀로 하여금 먼저 그 마음을 체받게

35) 『대종경』 수행품 60장.(『원불교전서』, 181쪽)

36) 같은 책, 인도품 5장.(『원불교전서』, 187쪽)

37) 같은 책, 교의품 23장.(『원불교전서』, 125쪽)

하는 것이요, 둘째는 행교(行敎)라 자신이 먼저 실행하고 행동에 법도가 있어서 자녀로 하여금 저절로 그 실행을 체받게 하는 것이요, 셋째는 언교(言敎)라 매양 불보살 성현들과 위인 달사들의 가언 선행(嘉言善行)을 많이 일러 주어 그것을 기억하여 체받게 하며 모든 사리(事理)를 순순히 타일러서 가르치는 것이요, 넷째는 엄교(嚴敎)라 이는 철없는 때에 부득이 위엄으로 가르치는 법이니 이는 자주 쓸 법은 아니니라. 그러므로, 한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치되 어머니 태중으로 비롯하여 성인(成人)이 되기까지 이 네 가지 법을 아울러 쓰면 착한 사람 되게 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³⁸⁾

이에 의해서 보면 소태산의 교육방법은 철저하게 학습자중심이다. 학습자가 받아들일 수 있다면 예컨대 나무에 있어서 잎이나 줄기나 뿌리 어느 곳을 통해서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정에서 자녀를 가르칠 때에도 심교(心敎)·행교(行敎)·언교(言敎)·엄교(嚴敎)를 아울러 쓰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셋째 교육형태로 보면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는 점이다. 소태산은 불법(佛法)의 시대화·대중화·생활화를 표방하고 있다. 이러한 이념은 교리의 전반에 걸쳐 있으며 불법시생활 생활시불법(佛法是生活 生活是佛法)·무시선 무처선(無時禪 無處禪) 등의 표어로 대표되고 있다.³⁹⁾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22> “미래의 불법은 재래와 같은 제도의 불법이 아니라 사·농·공·상을 여의지 아니하고, 또는 재가출가를 막론하고 일반적으로 공부하는 불법이 될 것이며, 부처를 숭배하는 것도 한갓 국한된 불상에만 귀의하지 않고, 우주 만물 허공 법계를 다 부처로 알게 되므로 일과 공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세상일을 잘하면 그것이 곧 불법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요, 불법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는 사람이 될 것이며, 또는 불공하는 법도 불공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불공하는 이의 일과 원을 따라 그 불공하는 처소와 부처가 있게 되나니, · · · 장래에 가히 그 실지를 보게 되리라.”⁴⁰⁾

<23> “과거의 불교는 출세간 생활을 본위로 하여 교리와 제도가 조직이 되었으므로, 세간 생활하는 일반 사람에 있어서는 모든 것이 잘 맞지 아니하였으며, · · · (중략) · · · 출가를 하는 것도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년기에는 문자를 배우게 하고, 장년기에는 도학(道學)을 배우며 제도사업에 노력하게 하고, 노년기에는 경치 좋고 한적한 곳에 들어가 세간의 애착 탐착을 다 여의고 생사대사를 연마하면서 춘추로는 세간교당을 순회하여 교화에 노력하고, 동하에는 다시 수양생활을 주로 하여서, 이와 같이 일생생활에 결합된 점이 없게 하자는 것이며, 이 교리 이 제도를 운전하는 기관에 있어서도 시대와 인심(人心)을 따라 결합됨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니라.”⁴¹⁾

38) 같은 책, 인도품 46장.(『원불교전서』, 209-210쪽)

39) 원불교의 종교개혁 방향에 대해서는 류병덕저 『원불교와 한국사회』(시인사, 1986), 480쪽 이하를 참조.

40) 같은 책, 서품 15장.(『원불교전서』, 102-103쪽)

소태산은 종교적 수행이 사회생활에 도움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직업을 무시하는 등의 사회에 해독을 미친다는 것이다. 불법공부를 잘하면 세상일을 잘하며, 불공(佛供)할 처소와 부처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일과 원(願)에 의하므로, 공부가 현실생활을 떠나서 존재하지 않음을 분명히 하고 있다. 특히 일생을 통해 볼 때 유년기에는 문자교육을 받고, 장년기에는 도학 즉 도덕교육을 통한 제도(濟度)사업에 힘쓰며, 노년기에는 수양생활을 주로 함으로써 세상에 유익된 인물이 되도록 설정하고 있다.

넷째 교육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종교가의 가르침이므로 실천이 전제되지만 자녀를 가르치는 부모나 대중을 이끄는 지도인의 실천덕목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다. 소태산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24> “자녀를 가르치는 데에는 부모 자신이 먼저 상봉하술의 도에 어긋남이 없어야 할 것이니, 만일 자녀의 보는 바에 자신이 직접 불효를 한다든지 불경을 한다든지 기타 무슨 일이나 좋지 못한 행동을 한다면 그 자녀를 지도할 위신이 없게 되는 것이요, 둘째는 그 언동이 근엄(謹嚴)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부모를 무난하게 아는 때에는 그 자녀를 정당한 규율로 지도하기가 어려운 것이요, 셋째는 친애(親愛)를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근엄하기만 하고 친애하는 정이 건네지 아니하면 그 자녀를 진정으로 감화하지 못하는 것이요, 넷째는 모든 언약에 신용을 잃지 말아야 할 것이니 만일 신용을 잃고 보면 그 자녀에게 철저한 영(令)을 세우지 못하는 것이요, 다섯째는 상벌을 분명히 할 것이니 만일 상벌이 분명하지 못하면 그 자녀에게 참다운 각성을 주지 못하는 것이요, 여섯째는 어릴 때부터 정당한 신앙심을 넣어 주어야 할 것이니 만일 신앙심이 없으면 자라는 도중에 다른 외경의 유혹을 받기 쉬운 것이요, 일곱째는 어릴 때부터 공익심을 권장하여야 할 것이니 만일 공익심의 권장이 없으면 자연히 이기주의의 싹이 커나는 것이요, 여덟째는 어릴 때부터 남의 악평이나 훼담(毀談)등을 금해야 할 것이니 만일 그것을 금하지 아니하면 자연 경박한 습관이 커나서 구화(口禍)의 문이 열리게 되는 것이요, 아홉째는 어릴 때부터 예 아닌 물건은 비록 적은 것이라도 취하지 못하게 할 것이니 만일 예 아닌 물건을 취하여 오게 하면 자연 염치없는 습관이 커나게 되나니라.”⁴²⁾

<25> “지도인으로서 준비할 요법

1. 지도받는 사람 이상의 지식을 가질 것이요,
2. 지도받는 사람에게 신용을 잃지 말 것이요,
3. 지도받는 사람에게 사리(私利)를 취하지 말 것이요,
4. 일을 당할 때마다 지행(知行)을 대조할 것이니라.”⁴³⁾

자녀교육의 덕목으로 상봉하술의 도, 언동의 근엄, 친애, 신용, 상벌, 신앙심, 공익심, 악

41) 같은 책, 18장.(『원불교전서』, 109쪽)

42) 같은 책, 인도품 46장.(『원불교전서』, 209-210쪽)

43) 『정전』 수행편 최초법어.(『원불교전서』, 86쪽)

평 해당의 금지, 예의 등 아홉 가지를 말한다. 이들은 각각 성장과정에 미칠 영향을 고려한 가르침이다. 또한 교육자인 지도인의 덕목으로 지식을 가질 것, 신용을 잃지 말 것, 사리를 취하지 말 것, 지행을 대조할 것 등 네 가지를 지적하고 있다. 특히 자료 <25>는 소태산이 대각 직후에 베푼 「최조법어」에 나타나고 있으므로 교화활동 초기부터 시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소태산은 이와 같이 교육을 중시하기 때문에 그의 법문에는 교육에 관한 사항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인간이 부모 태중에 태태하여 일생을 살다가 명을 마치고 새로운 생명을 얻는 과정을 진급의 길로 설정한다면 그것은 교육·훈련에 의해서 가능해지는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리고 이러한 그의 가르침은 열반후 교법을 사자상승(師資相承)한 정산(鼎山, 宋奎, 1900-1962)에 의해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된다.

유시부터 유학을 수학하여 일가를 이룬 그에게는 많은 저술이 전한다. 해방후 건국의 요체를 밝힌 『건국론(建國論)』(1945)에서부터 세상을 살아가 도리를 밝힌 『세전(世典)』, 예법의 원리와 실재를 밝힌 『예전』 등이 그러하다. 언행록이 『정산종사법어』로 결집되어 있는데 이 중에는 교육과 관련된 많은 법설이 수록되어 있다. 그는 교육에 대해 이렇게 밝히고 있다.

<26> “교육은 세계를 진화시키는 근원이요, 인류를 문명케 하는 기초니, 개인 가정 사회 국가의 성쇠와 흥망을 좌우하는 것이 교육을 잘하고 잘못함에 있다 할 것이니라. 사람이 비록 만물 가운데 가장 영특하다 하나 교육의 힘이 아니면 능히 그 최령의 자격을 이루지 못할 것이며, 가정 사회 국가 세계가 비록 이루어져 있을지라도 또한 교육의 힘이 아니면 능히 유지발전을 보지 못할 것이니, 그러므로 사람의 일생에 기초가 되는 태중의 기간으로부터 나고 자라는 여러 기간을 통하여 반드시 태교와 유교와 통교의 모든 도가 잘 배풀어져야 가정 사회 국가 세계에 유용한 사람이 될 것이니라.

또한 교육에는 크게 나누어 두 가지 부문이 있나니, 하나는 과학교육이요 하나는 도학교육이라, 과학교육은 물질문명의 근본으로서 세상의 외부 발전을 맡았고, 도학교육은 정신문명의 근원으로서 세상의 내부 발전을 맡았나니, 마땅히 이 두 교육을 아울러 나아가되 도학으로써 바탕되는 교육을 삼고 과학으로써 사용하는 교육을 삼아야 안과 밖의 문명이 겸전하고 인류의 행복이 원만하리라”⁴⁴⁾

도학과 과학의 병진교육은 말할 나위없이 소태산이 밝힌 교리사상이다. 그러나 그가 새롭게 전개하고 있는 교리사상의 중요성은 구체적인 실천을 전제하고 있다는데 특징이 있다. 1946년에 설립한 유일학림이라는 관인 교육기관이다. 이것이 오늘날 원광대학교로 발전하였고, 다수의 유치원과 중고등학교 등 교육기관은 정산의 그러한 실천력을 말해주는 예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이후의 법주(法主)들을 통해 면면히 이어져 오고 있는 전통으

44) 『世典』 제2장 교육(『원불교전서』 720쪽)

로 자리 잡히게 되었다.

V. 결 어

이상에서 소태산이 대각후 원불교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학교교육제도를 어떻게 수용했으며, 그 교육사상이 어떤 것인가를 살펴보았다. 대각이후 그의 활동기가 학교교육제도의 시행과 시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므로 구세활동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받았을 것은 추측하기 어렵지 않다. 원불교 교단사의 전개에는 이러한 사항이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신앙공동체생활을 시작한 1924년 이후의 교단활동에 있어서는 학교교육제도가 충분히 활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 일단을 정리해 보면 <표 1>과 같다.

소태산이 원불교 창립과정에서 전개한 공동생활에는 이러한 용어에서 보는 바와 같이 학교교육제도를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 특징을 몇 가지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근대의 학교교육제도가 시행된 기간과 원불교 창립과정이 겹치는 기간이므로

<표 1> 원불교 교리용어와 학교교육 제도용어의 대비

원불교 교리용어	학교교육 제도용어	비고
교육, 훈련	교육, 훈련	
공부, 마음공부	공부	수행, 학습
정기훈련, 상시훈련	정규교육, 비정규교육	
결제, 해제	개학, 방학	
하선, 동선	1학기, 2학기	
신분조사서	학적부	신분검사법
학력고시법,	평가법	
과목	과목	
교과서, 경전	교과서, 교재	
학위등급	학력평가 등급	법위등급
승급식	진급, 진학	
학원(學院)	학교	
일기법(정기일기, 상사일기)	일기	
학원(學員)	학생	
학원교무, 교원, 교감	교사, 교감	

소태산은 이 제도권의 교육사상과 제도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리사상에 있어서 사요의 지자본위나 타자녀교육과 같이 사회구제의 약방문으로 내놓은 실천이념이 이를 잘 말해준다. 그가 시대적인 교육원리를 응용하고 있는 것은 이미 최초법어에 있어서 수제지평의 틀을 변용한 바에서도 볼 수 있다. 그의 교육 훈련은 종교적 신행의 성격을 띠고 있으나 학교교육과정을 수용하므로써 제도권의 교육용어가 폭넓게 쓰이고 있다. 만년의 교단 3대사업목표에 교육을 넣어 교리사적으로 그 위치를 확립하고 있는 것이다.

둘째, 구세활동 초기부터 학교교육과정을 수용한 소태산은 재세중에 제도를 갖추고 제도권의 공인기관을 설립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다. 교육과정을 수행해 위에 맞추어 시행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정기훈련 프로그램을 정착시키고 교과과목과 교재, 그리고 교원에 해당하는 교역자의 육성까지 형식과 내용을 마련해 나가고 있다. 비정규 교육에 해당하는 상시훈련을 효과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상시응용 주의사항 6조」와 재가인들의 「교당내왕시 주의사항 6조」⁴⁵⁾를 두는 등 쉽 없이 공부가 계속되도록 하고 있다.

셋째, 소태산의 교육사상에는 도학과학의 병진론이 강조되고 있으며 이는 물질문명에 대한 정신문명의 제창으로 해석된다. 교육방법은 도학과 과학을 본말로 보며, 학습자의 능력에 맞추는 교육,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그리고 교육자의 덕목을 분명히 하고 있는 점 등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들은 그의 「최초법어」에서부터 나타나고 있으며 그의 교설에 널리 산재한다.

넷째, 교육제도를 어느 정도 갖춘 소태산은 관인의 정규교육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청원이 일제에 의해 거부 당하자 그는 우선 교단내의 기관으로 운영한다. 해방직후 이루어진 교육기관은 이러한 유업의 계승한 것이다. 그가 만년에 교육분야를 교단 3대 사업목표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데, 이는 교리상에 있어서 교육이 갖는 의미와 함께 행정적인 힘을 기우릴 수밖에 없는 제도를 확립한 것이다.

오늘날 원불교 교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교육사업은 전적으로 이러한 제도의 바탕위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정산을 비롯한 후인들의 교육사상은 소태산사상을 계승하고 있지만 이와 같은 교단적인 풍토 위에서 전개되는 성격을 지니고 있다.

참고문헌

- 『대종경(大宗經)』,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77
 『세전(世典)』,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77
 『원불교교고총간(圓佛敎敎故叢刊)』, 익산: 정화사, 1969
 『원불교교사(圓佛敎敎史)』,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77

45) 『정전』 수행편 제2장 정기훈련과 상시훈련.(『원불교전서』, 57-58쪽)

- 『정전(正典)』, 『원불교전서』, 익산: 원불교출판사, 1977
- 김귀성, 「원불교 종교교육의 과제와 전망」, 『한일 종교교육 심포지움 발표논문집』, 부산: 동서대, 2000.2
- 김정용, 「일제하 교단의 수난」, 성업봉찬회편,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9
- 김혜광, 「교육사」, 성업봉찬회편, 『원불교칠십년정신사』,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9
- 김홍철저, 『한국신종교사상의 연구』, 서울: 집문당, 1989
- 류병덕저, 『원불교와 한국사회』, 서울: 시인사, 1977
- 양은용, 「구산송인기의 천황모독사건과 일제말기 원불교의 수난」, 『한국종교사연구』 7, 익산: 한국종교사학회, 1999
- 양은용, 「원불교 범위등급의 성립과 특징」, 『원불교사상』 25, 익산: 원불교사상연구원, 2001
- 양은용, 「한국인의 정체성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종교교육학연구』 16, 서울: 한국종교교육학회, 2003
- 유용식저, 『일제하 교육진흥의 논리와 운동에 관한 연구 - 1920년대 전반기를 중심으로 -』, 서울: 문음사, 2002
- 이여성·김세용공저, 『숫자조선연구』 3, 서울: 세광사, 1932
- 조선총독부편, 『시정삼십년사(施政三十年史)』, 서울: 조선총독부, 1940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 개화기의 학교교육』,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1994
-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근대 학교교육 100년사 연구 II: 일제시대의 학교교육』, 한국교육개발원, 1997
- 한정석, 「원불교 불교관」, 수위단사무처편, 『원불교사상 시론』 I, (익산: 원불교출판사, 1982)

원고접수: 2007년 10월 15일 1차심사: 11월 8일 게재승인일: 12월 18일

연구자 소개: 양은용

① 전공: 불교학 / 소속: 원광대학교 한국문화학과 교수

② 관심영역: 한국사상사

③ 주요논저: 「임진왜란과 불교의 승군」, 「소태산 대중사의 금강산 법문」, 「제7차 교육과정과 원불교의 종교교육」

④ E-mail: ilsan@wonkwang.ac.kr

Abstract

The Founding Master of Wonbuddhism, So Tae San's Acceptance of School Education System and his Educational Thoughts

Yang, Eun-Yong

Wonkwang University

So tae san's(cognomen) full name was Park Chung Bin(少太山: 朴重彬, 1891-1991) attained great enlightenment the truth in 1916 and established religious order, after that cultivating activities and into Nirvana in January 1941. At that time, und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occupied by force, school system already settled down by Japan. his religious order was organized as a association of the masses was under the restraint by Japanese imperialism. Under the restricted situation, he educated students by actively accepted school system and established religious training system.

The acceptance of school education system by the Founder Master So Tae San was appeared in Doctrinal thought and training methods. The idea of salvation of the world represented in the founding motive, "With this Great Opening of Matter, Let there be a Great Opening of spirit". also stressed on advance together Science and Religion. Such examples could be found in The primacy of the Wise, Educating Other's children as a practical way for the salvation of society, and settled the harmonized training of Threefold study of cultivating the Spirit, Inquiry into Human Affairs and universal principles and Choice in Action.

Especially, School system actually applied in training system(formal and informal education vs fixed term training and daily training system), stages of Dharma Rank, Evaluation system etc. He organized educational society and managed the school during his life time. By those effort, This school system has developed into Wonkwang university and variety of schools in Wonbuddhism.

Key words : Wonbuddhism, So Tae San, educationg Other's children, Fixed term training, Wonkwnag university